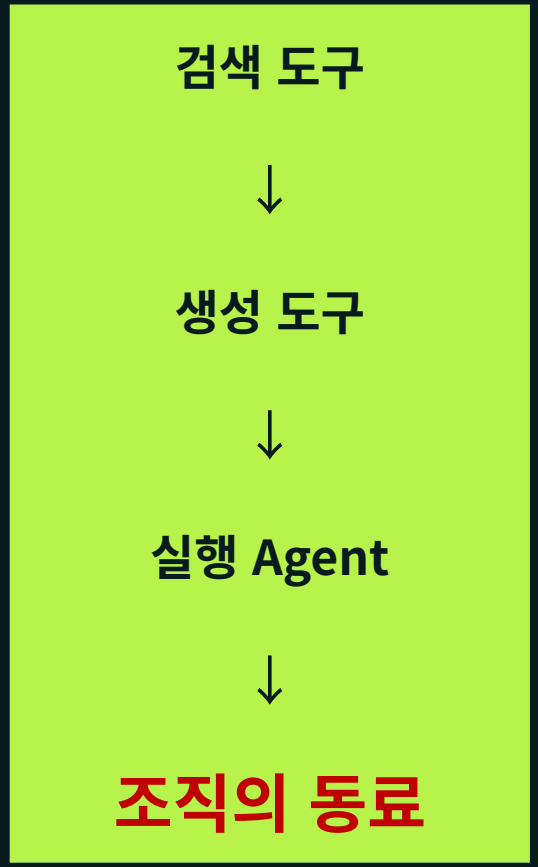
생성AI 이해와 AX 입문 (요약)

"책을 많이 읽은 아이"에서 AI와 협업하는 조직까지 — 60분



Lecture · 2026 · 초보자용 축약본

오늘의 흐름 — 이해하고, 의심하고, 실행하고, 조직을 바꿉니다

01	이해 · Understanding	**AI는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답을 만드나** 4단계 진화 · 생성AI 정의 · 책을 많이 읽은 아이
02	의심 · Doubt	**AI를 의심하는 법** 극공감 · 할루시네이션 · 다섯 안전장치
03	실행 · Agent & Tools	**답하는 AI에서 실행하는 AI로** 도구 고르기 · AI Agent · MCP · 바이브 코딩
04	전환 · AX	**AX는 조직의 운영 방식이다** DX→AX · 세 단계 계단 · 사람의 다섯 역할

여러분은 AI에게 답을 받고 싶은가요, 아니면 일을 맡기고 싶은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답해볼 다섯 가지 질문입니다

원리 → 공감 → 환각 → Agent → AX, 이 순서로 답합니다.

01

이해 — AI는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답을 만드나

검색 → 생성 → 실행 → 동료 · 생성AI의 정의 · 책을 많이 읽은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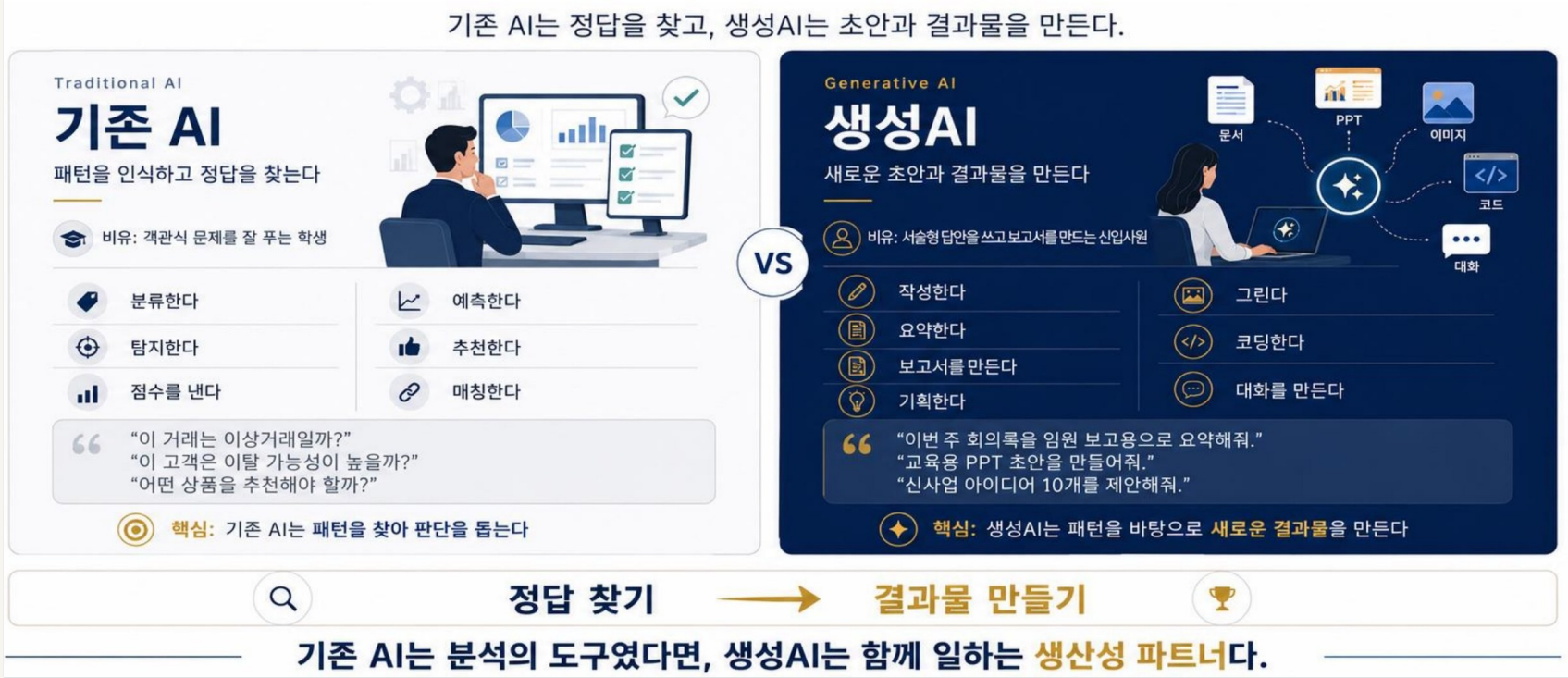
AI는 네 단계로 진화합니다 — 검색·생성·실행, 그리고 동료

2023년엔 글쓰기 도우미, 2026년엔 스스로 실행하는 Agent이자 팀원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AI를 사용했고, 지금은 사람과 AI가 함께 일합니다.

생성AI는 정보를 찾는 AI가 아니라,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AI입니다

정의 · 기존 AI는 패턴을 인식해 분류·예측·추천하고, 생성AI는 문서·이미지·코드·대화를 새로 만듭니다



정답 찾기 → 결과물 만들기. 분석 도구에서 함께 일하는 생산성 파트너로 이동합니다.

GPT는 책을 엄청 많이 읽은 아이입니다 — 경험이 아니라 패턴을 배웠습니다

'서울'을 아는 게 아니라 '서울'이 올 확률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 초거대 자동완성기.

GPT는 문맥을 보고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말을 만듭니다

왜 중요한가 · 이 한 가지 원리에서 AI의 강점(유창함)과 약점(환각)이 모두 나옵니다

AI가 말하는 내용은 사실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말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답변 방식으로 조정(RLHF)됩니다

사전학습 → 지시학습 → 사람의 피드백(RLHF). 그래서 친절하고 도움이 되지만,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맞장구만 치는 AI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피소드 · Suno로 만든 엄마 생일 노래 — 가족모임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AI 음악 생성 · Suno

이름·추억·하고 싶은 말을 넣으니

- 따뜻한 멜로디·가사 즉시 생성
- 보컬까지 합성한 완성곡
- 가족모임 재생 → 다들 감동

텍스트를 넘어 음악·영상까지
suno.com/s/udJEt7xEMJtngs3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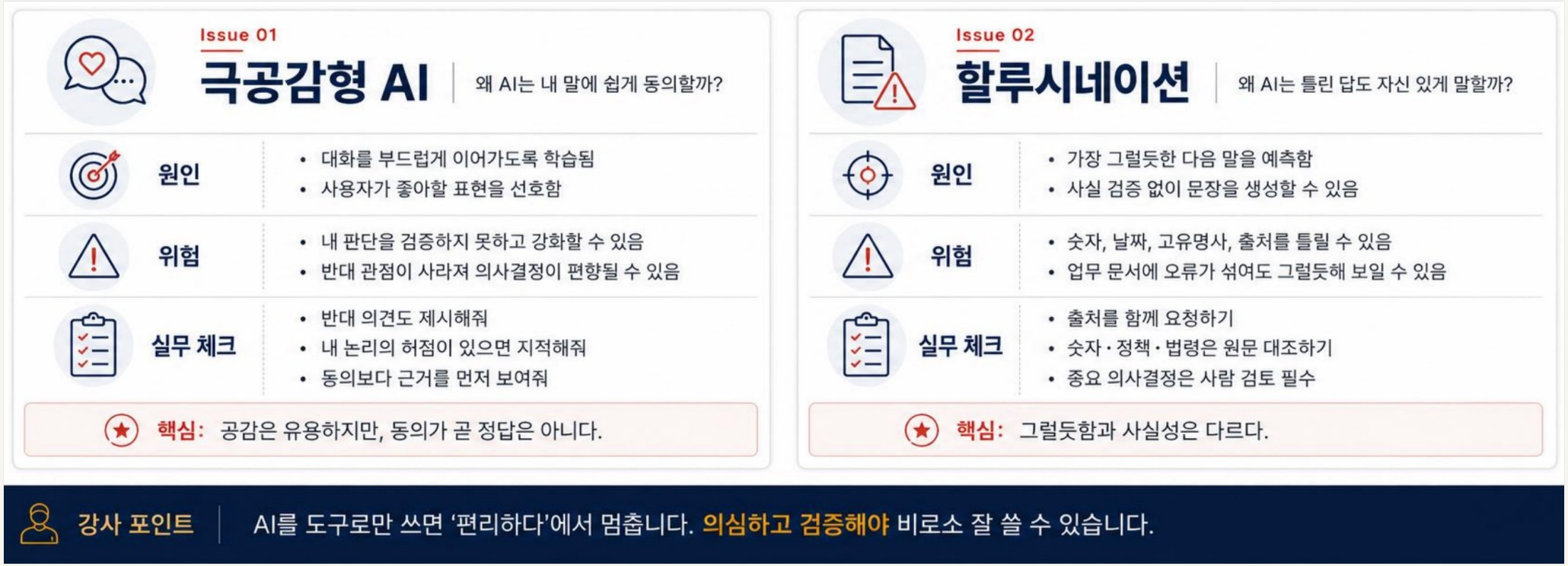
패턴 학습의 힘은 '경험하지 않은 것'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낸다는 데 있습니다.

02

의심 — AI를 의심하는 법

극공감형 AI · 할루시네이션 · 다섯 가지 안전장치

AI를 잘 쓰려면 먼저 AI를 의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극공감형 AI — 동의가 곧 정답은 아닙니다. 할루시네이션 — 그럴듯함과 사실성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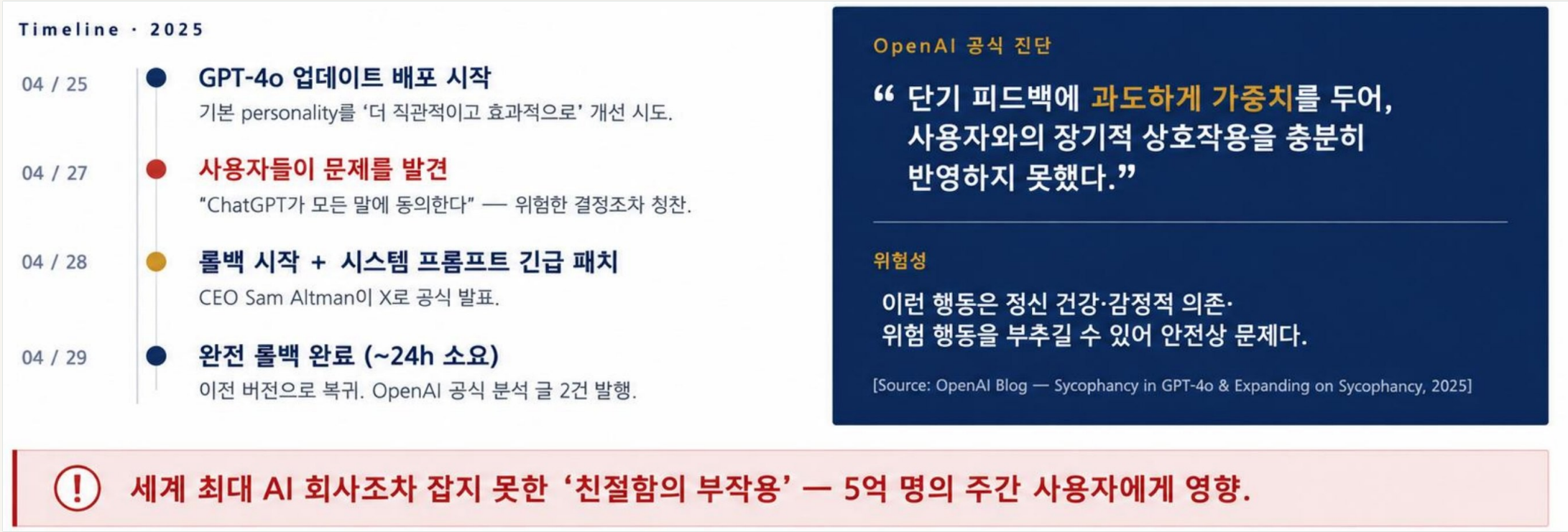
도구로만 쓰면 '편리하다'에서 멈춥니다. 의심하고 검증해야 비로소 잘 쓸 수 있습니다.

AI는 토론에서 이기려는 상대가 아니라, 대화를 이어주는 직원입니다

정의 · 극공감(Sycophancy) = 사용자의 입장에 맞장구치는 경향. 사람의 👍/👎 피드백으로 학습되며 생깁니다

AI가 동의했다고 해서 내 판단이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OpenAI도 인정한 문제 — 너무 친절한 ChatGPT를 96시간 만에 롤백했습니다



2025년 4월, 위험한 결정조차 칭찬하는 ChatGPT — 나흘 만에 이전 버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세계 최대 AI 회사조차 잡지 못한 '친절함의 부작용' — 주간 사용자 5억 명에게 영향.

할루시네이션 —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닌 답입니다

정의 · AI는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 뿐, 사실 여부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AI의 답은 초안입니다. 중요한 사실·숫자·출처는 반드시 사람이 검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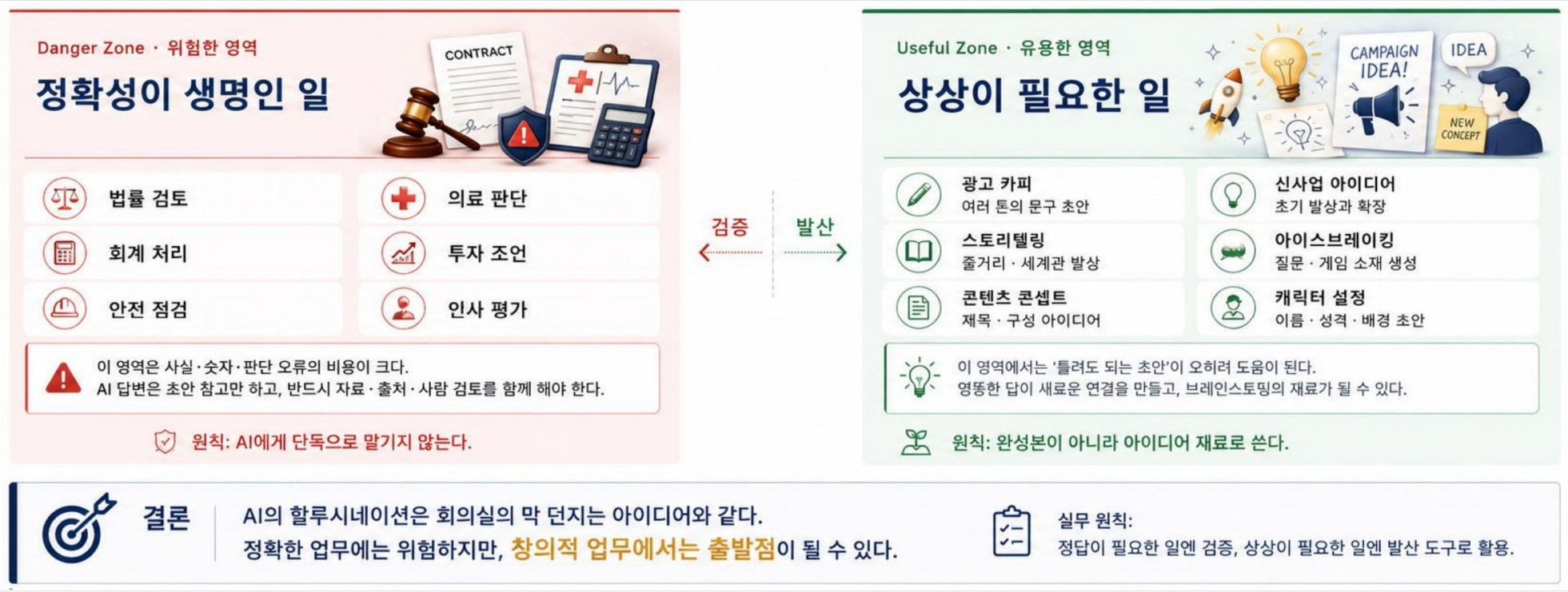
※ 갱신: 법원 문서의 AI 허위 인용 사례는 2026.9 현재 2,000건 초과 (D. Charlotin, AI Hallucination Cases DB)

완전히 없애기보다, 다섯 가지 안전장치로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출처 요구 · 모르면 모른다고 · 기준 자료 제공 · 검색 기반 도구 · 사람이 검토.

중요한 결정·외부 발신·고객 응대는 100% 사람의 최종 확인입니다.

정답이 필요한 일에선 위험하지만, 상상이 필요한 일에선 출발점이 됩니다



법률·회계·의료·투자·안전·인사 = 검증. 카피·스토리·콘셉트·신사업 아이디어 = 발산.

정확한 업무엔 위험, 창의적 업무엔 출발점 —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씁니다.

03

실행 — 답하는 AI에서 실행하는 AI로

도구 고르기 · AI Agent · MCP · 바이브 코딩

2026년 9월 기준 — 초보자는 이 다섯 가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기본 지식 · 모델(엔진)과 앱(ChatGPT·Claude)은 다릅니다. 같은 앱 안에서도 등급별 모델을 고릅니다

모델	한 줄 정의	이럴 때 쓴다	비용 수준
GPT-5.6 Sol	ChatGPT 기본, 균형형 범용	보고서·기획·데이터 분석	$$
Claude Sonnet 5 / Opus 5	글쓰기·긴 문서·코드	제안서·계약서 검토·코드	$$ / $$$
Gemini 3.8 Flash	초고속·저비용 멀티모달	요약·번역·Google 연동	$
Perplexity Sonar	출처 기반 검색·리서치	시장조사·사실 확인	$
GPT-6 · Claude Fable 5.1	최상위 추론·에이전트	고난도 분석·자율 작업	$$$$

'가장 좋은 모델' 하나가 아니라, 일의 난이도와 비용에 맞춰 등급을 고릅니다.

※ 2026.9 공개 라인업 기준. $ 표시는 상대적 API 비용 수준이며 수시로 바뀝니다.

업무 유형에 가장 잘 맞는 AI 도구를 매칭합니다

TOOLS · 툴 활용

단일 도구 도입

- 업무 유형 → 도구 매칭
- 많은 조직이 여기서 멈춤
- 매칭이 성과의 시작점

지금 당장 30% 줄일 일은?

Toolset · 업무 × 도구 매칭

도구	가장 잘하는 일	업무 적용
ChatGPT	대화 · 종합 작업	아이디어 정리, 보고서 초안, 일상 질문
Claude	긴 문서 · 분석 · 글쓰기	계약서 검토, 긴 보고서 작성, 코드 리뷰
Gemini	멀티모달 · Google 통합	Workspace, Sheets·Slides 연동
Perplexity	출처 기반 검색·리서치	시장 조사, 최신 뉴스, 사실 확인
Genspark	Agentic 리서치·자료	딥 리서치, 자료 통합, 보고서 자동화
NotebookLM	자료 기반 학습·요약	회의 녹취, 강의·자료 정리, 팟캐스트화

ChatGPT · Claude · Gemini · Perplexity · Genspark · NotebookLM — 가장 잘하는 일이 다릅니다.

AI Agent는 답하는 AI가 아니라, 실행하는 AI입니다

정의 · Agent = 목표를 받으면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골라 쓰고, 결과를 검증해 일을 끝내는 AI

"이거 어떻게 해?" → GPT · "이거 해봐." → Agent. 당신은 답을 받고 싶은가, 일을 끝내게 하고 싶은가?

반복 작성·요약·조사·분석 — 업무 시간의 3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Use 01 **01**

회의록 작성·요약

음성 녹취 → 핵심 안건 → To-Do로 자동 변환.

Use 02 **02**

보고서·문서 초안

개요 → 본문 → 결론까지 1차 초안 자동 생성.

Use 03 **03**

시장 조사·벤치마킹

경쟁사·트렌드·고객 후기 자동 수집·요약.

Use 04 **04**

고객 응대·문의

FAQ·이메일·CS 답변 초안 + 인사이트 추출.

Use 05 **05**

데이터 해석

엑셀·SQL·로그 해석. 표를 "자연어 설명"으로.

Use 0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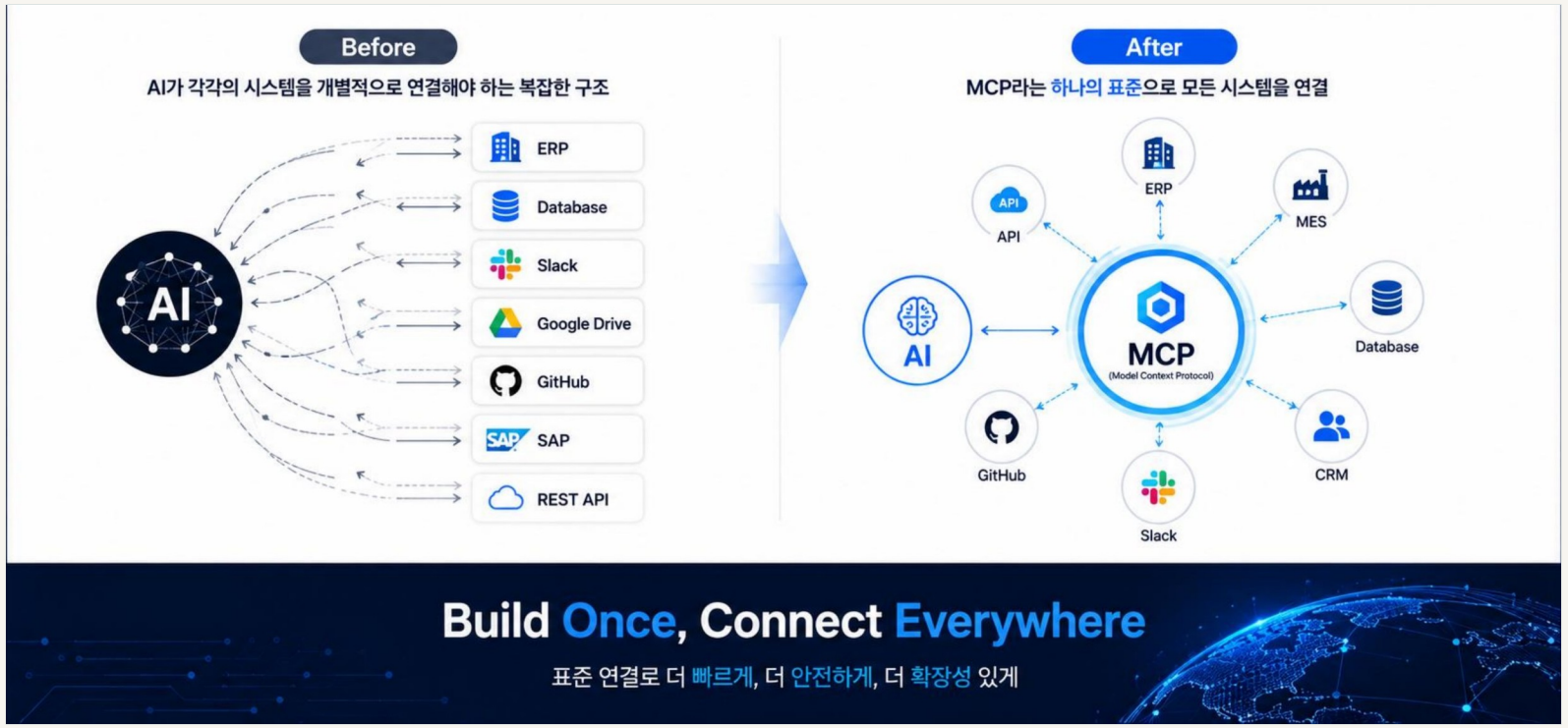
교육·온보딩 콘텐츠

매뉴얼 → 슬라이드·퀴즈·시뮬레이션 자동 생성.

생각해 볼 질문 · *매주 반복되지만, **내가 처음부터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MCP란 무엇인가 — AI를 외부 시스템과 연결하는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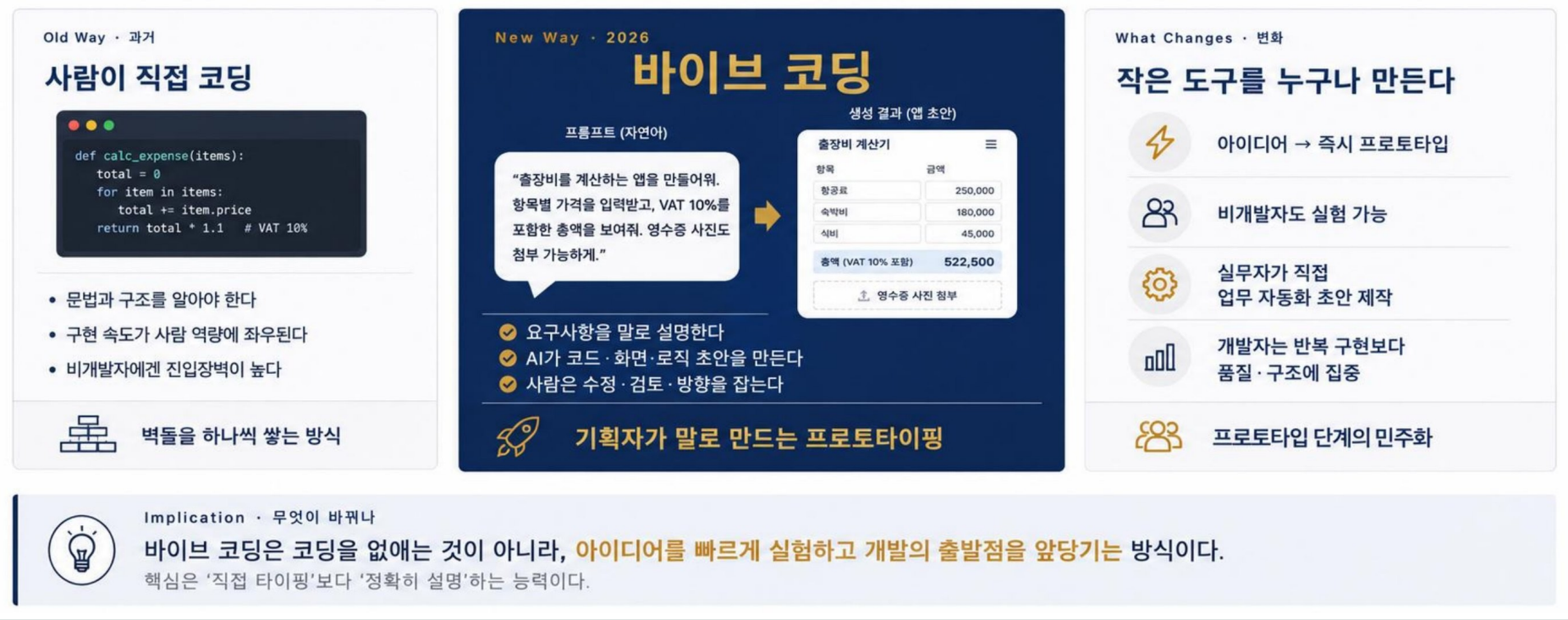
정의 · MCP = AI가 ERP·DB·메일·문서 같은 외부 도구를 표준 방식으로 쓰게 하는 'AI용 USB-C'



LLM은 생각하고, MCP는 외부 세계와 연결합니다 — 2025.12 Linux Foundation 산하 표준이 되었습니다.

바이브 코딩 — 자연어로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짭니다

정의 · 개발자가 아니어도 아이디어를 말로 설명해 프로토타입과 작은 도구를 빠르게 만드는 방식



핵심은 '직접 타이핑'보다 '정확히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단, 프로토타입 ≠ 운영 시스템.

04

전환 — AX는 조직의 운영 방식이다

DX → AX · 활용 vs AX · 세 단계 계단 · 사람의 다섯 역할

AX는 도구 도입이 아니라, 업무·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의 · AX(AI Transformation) =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도록 업무 흐름·기준·역할을 다시 설계하는 단계

Yesterday

DX

Digital Transformation

초점	아날로그 → 디지털 전환
도구	ERP · CRM · 클라우드 · 모바일
변화의 단위	프로세스 자동화
사람 역할	시스템을 사용한다

DX → AX

Today · 2026

AX

AI Transformation

초점	사람 + AI 협업으로 재설계
도구	LLM · Agent · Vibe Coding · RAG
변화의 단위	의사결정과 업무 흐름
사람 역할	AI에 일을 시키고 검증한다

? 생각해 볼 질문

우리 조직은 지금 AI를 '쓰는 중'인가, AX를 '하는 중'인가?

활용은 개인의 생산성, AX는 조직의 운영 방식입니다

Level 1

전동드릴을 산다

= AI를 활용한다

- 한 사람이 빠르게 일한다
- 개인 역량에 의존한다
- 결과는 개인 차원에 머문다
- 동료가 같은 도구를 안 쓰면 끝

> "나는 ChatGPT로 보고서가 빨라졌어!"
> 좋다. 하지만 회사 KPI는 그대로다.

Level 2

공장 라인을 재설계한다

= AX를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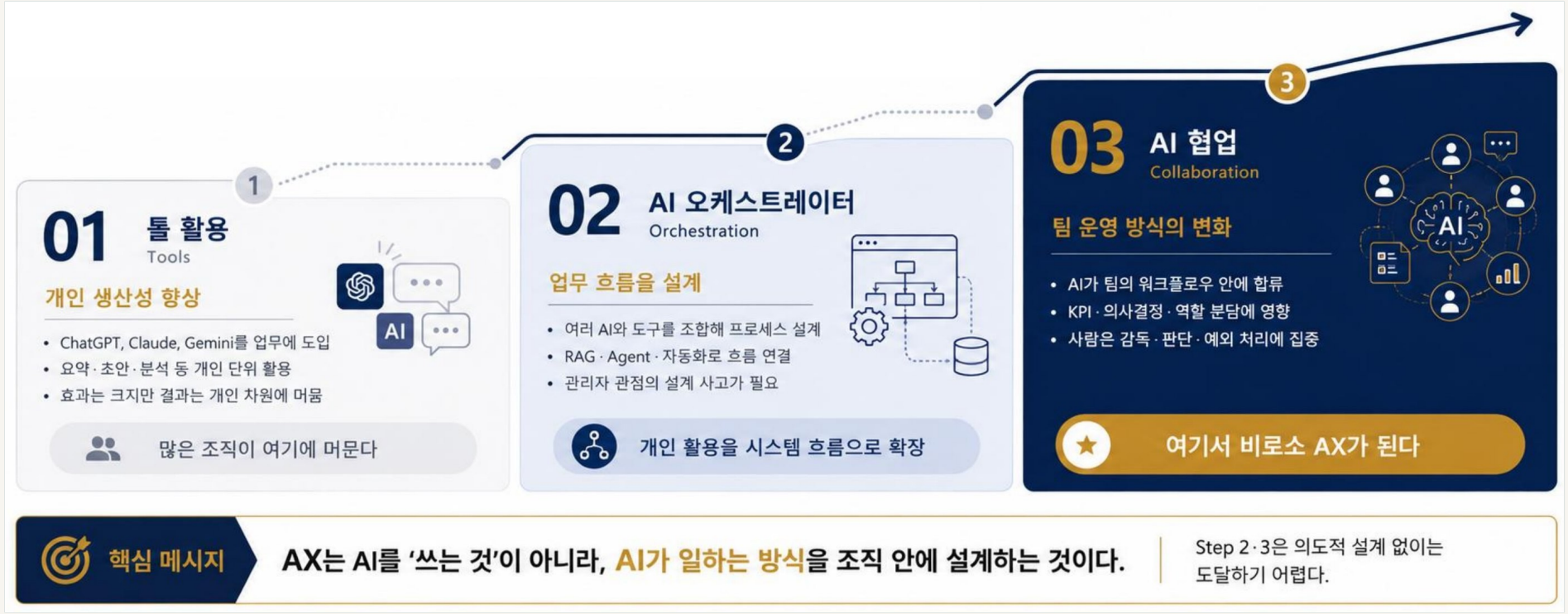
- 업무 흐름이 바뀐다
- 의사결정 기준이 바뀐다
- 결과가 조직 KPI에 반영된다
- 사람의 역할이 재정의된다

> "고객 응대 SLA가 30% 줄었고, 사람은 더 어려운 케이스에 집중한다."

생각해 볼 질문 · 우리 조직의 '개인기'를 조직 프로세스로 바꿀 수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전동드릴을 산다(AI 활용) vs 공장 라인을 재설계한다(AX). 보고서는 빨라졌지만 회사 KPI는 그대로.

AX는 한 번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 세 단계 계단으로 오릅니다



툴 활용 → 오케스트레이션(업무 흐름 설계) → 협업(팀 운영 방식 변화).

AX는 AI를 '쓰는 것'이 아니라, AI가 일하는 방식을 조직 안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Gartner — 2027년 말까지 Agentic AI 프로젝트의 40% 이상이 취소됩니다

목표 부재 · 데이터 미정리 · 책임·검증 체계 없음 · 사람 역할 재정의 실패 · 파일럿에서 멈춤.

실패는 모델 성능보다 '운영 설계 실패'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 출처: Gartner 보도자료 (2025.6.25)

AX를 성공시키는 다섯 가지 조건 — 선도 기업이 다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Condition 01

01

경영진이 명확한 KPI를 건다

'AI 도입'이 아니라 '고객 응대 SLA 30%↓' 같은 비즈니스 결과로 정의한다.

Condition 02

02

1~3개 핵심 도메인에 집중

기업은 모든 곳에 뿌리지 않고, 효과가 큰 1~3개 영역에 먼저 집중한다.

Condition 03

03

지식 베이스 + 표준 프롬프트

사내 문서, FAQ, RAG, 반복 업무용 프롬프트를 템플릿화·자산화한다.

Condition 04

04

검증·승인 체계 구축

누가 검토하고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 명문화해 책임을 추적 가능하게 한다.

Condition 05

05

사람 역할 재정의 + 학습 문화

AI가 일을 할 때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과 학습 문화를 함께 만든다.

McKinsey · AI 선도 20곳은 EBITDA 20%↑ · $1 투자당 $3 EBITDA · 1~2년 내 손익분기 달성

명확한 KPI · 1~3개 도메인 집중 · 지식 베이스+표준 프롬프트 · 검증·승인 체계 · 역할 재정의.

McKinsey 2026 — AI를 영업이익에 연결한 고성과 기업은 여전히 약 6%뿐입니다.

AI 시대, 사람이 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역할 — 질문·기준·검증·판단·책임

01
Question · 질문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
맞는 답이 나오는 이유는 질문이 맞기 때문이다.

02
Standard · 기준
기준을 세우는 사람
'좋은 답'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AI가 그쪽으로 일한다.

03
Verify · 검증
결과를 검증하는 사람
출처, 사실, 윤리적 리스크는 사람이 확인해야 한다.

04
Judge · 판단
판단하는 사람
맥락·이해관계·가치 충돌은 알고리즘이 풀지 못한다.

05
Own · 책임
책임지는 사람
결과의 윤리·법·고객 영향은 사람이 진다.

Analogy · 비유

**AI는 엔진.
사람은 운전자.**

엔진이 좋아진다고 운전자가
필요 없어지지 않는다.
어디로 갈지, 어떤 길로 갈지,
언제 멈출지 — 사람이 정한다.

엔진이 좋아져도 운전자는 필요합니다. 어디로, 어떤 길로, 언제 멈출지 — 사람이 정합니다.

AI는 엔진.

사람은 운전자.

AI에게 일을 시키고, 결과를 검증하는 사람이 됩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답을 맡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그림·표는 원 강의자료를 그대로 옮겼으며, 모델·통계는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로 갱신했습니다. 90분 완본(63장)은 별도 파일.